

화순군, 청년 맞춤 실질적 지원 지역 정착 기여

4년 간 결혼장려금 9억여원 지급
혼인신고 후 5년 간 200만원 지원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이면 적용
“정주 생활 인구 늘리기 안간힘”

화순군이 결혼장려금 지급 정책을 시행한 이후 총 244쌍에게 9억3200만원을 지급했다. 그 결과, 내년 지원금 1000만원을 받는 부부 27쌍이 탄생한다. 청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지역 정착에 기여

한 셈이다. 군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출산·양육 고민을 해소할 정책들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20일 화순군에 따르면 결혼장려금은 결혼 초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혼 장려 정책으로 혼인신고 뒤 1년 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조례 시행일인 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 신고한 남녀로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하고 혼인 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며 혼인 신고 당일 전입 신고의 경우에도 포함된다.

신청 기한은 신청 가능일부터 36개월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지방소멸 극복 해법은 청년정책에 있다. 전남 최대 1000만원 결혼장려금 지급을 통해 신혼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꾸

릴 수 있도록 돕겠다”며 “다양한 청년 맞춤 정책 발굴을 통해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결혼장려금 외에도 만원임대주택, 신혼부부·다자녀 주택구매대출이자 지원,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출산·양육 지원금 등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 정책과 정주 인구의 출산 및 양육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화순=김선종 기자

2회 추경예산 289억원 증액 편성
담양군, 1회 대비 5.4% ↑

담양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5318억원보다 5.4% 증가한 5689억 원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85억 원(5.35%), 특별회계 4억 원(5.4%)이 각각 증액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세 및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 여건 악화로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 등에 대해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성이 높은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 인증벼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등 농업분야 49억원, 소화전 정비사업 등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에 45억원, 추월산지구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1억원, 유가조정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8억원, 자연재해 응급복구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4억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비 등 환경 분야에 13억원이 반영됐다.

이외에도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0억원, 취약지역 의료기관 지원 등 보건 분야 5억원, 노인의 날 행사 추진 등 사회복지 분야 2억원, 국도비 반환금 등 기타 분야에 66억원도 포함됐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세 수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을 위주로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물 안전 확보 역량 강화 한국수자원공사, 읍지연습 참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전시 국가 재난 안전 태세에 맞춰 국민의 물 안전을 위한 위기 대응 역량 점검에 나섰다.

20일 한국수자원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22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2024 읍지연습’에 본사 및 4개 유역본부, 27개 현장 지사 등 1000여 명이 참여 중이다.

35개소의 국가 중요시설을 관리 중인 만큼 전시 비상 상황에도 국민 생활과 산업에 밀접한 댐, 수도 등 기반 시설의 긴급 복구를 통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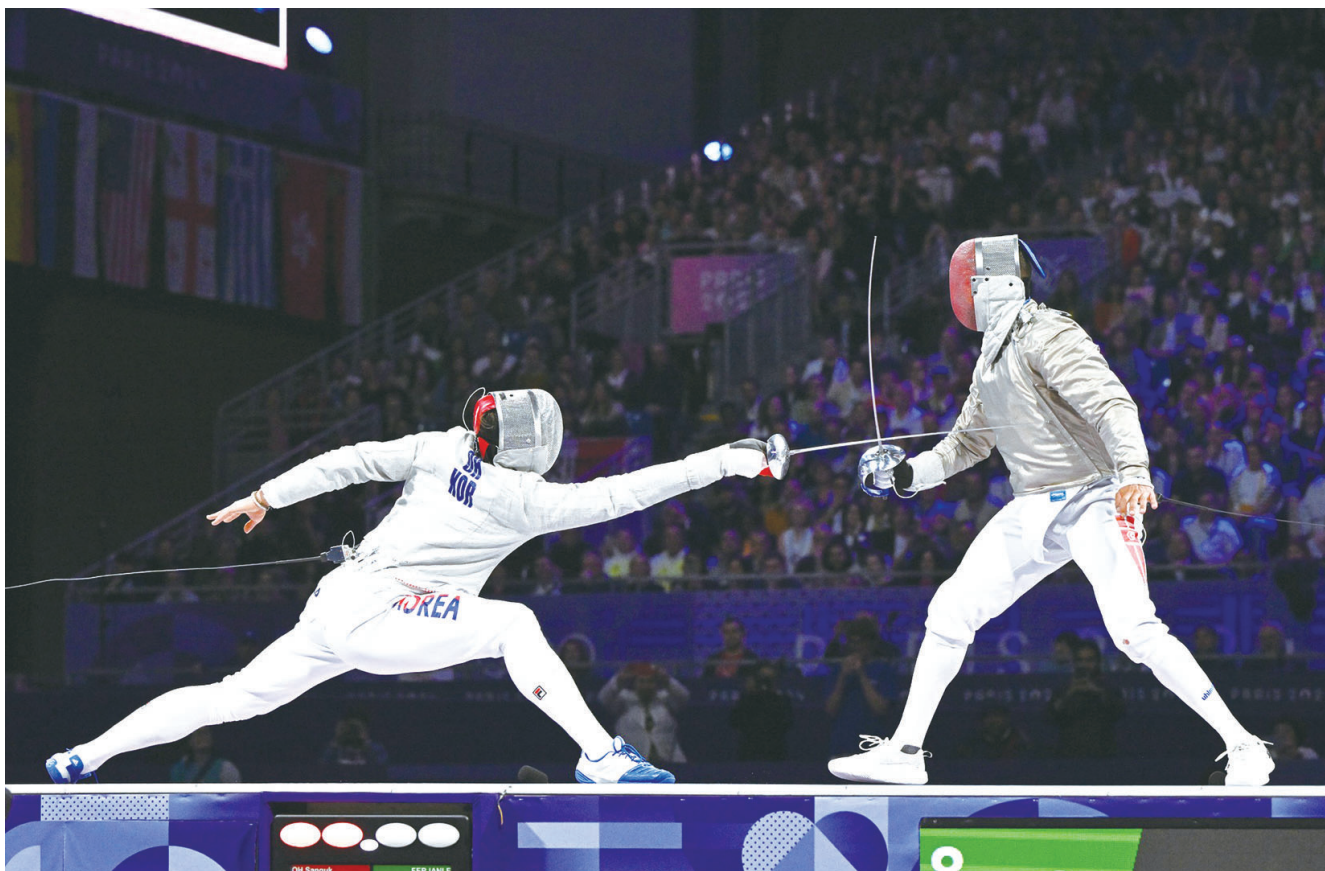
20일에는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지역 10개 시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장흥댐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이 주재하는 관계기관 합동 테러대응 실제 훈련을 실시했다.

드론 공격 등 테러로 인한 댐 수문파손 상황 발생을 가정하고 훈련이 진행됐으며 군, 경, 소방, 행정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수문 설비의 신속 복구 등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했다.

훈련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 장흥군, 제31보병사단, 93보병여단, 전남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전남경찰특공대 등 11개 기관 약 150명의 인원이 참여했으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만큼 장갑차, 긴급복구설비 크레인, 급급차, 소방차 등이 동원됐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전시를 포함한 각종 재난 및 비상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기관의 책무이다”며 “이번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가 중요시설의 위기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중등부 이상 남녀 전문 선수들이 출전해 펜싱 실력을 겨루고 있다. 영광군은 오는 25일까지 대통령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경국가대표선발대회와 생활체육 전국펜싱대회를 개최한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대통령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 대회

영광군이 오는 25일까지 총 11일 간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와 실내보조체육관에서 ‘제64회 대통령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와 ‘2024 생활체육 전국펜싱대회’를 개최한다.

20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전국 240개 팀 2500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먼저 개최되는 제64회 대통령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는 23일까지 중등부 이상 남녀 전문 선수들이 출전해 남녀 플러레, 에페, 사브르 개인전 및 단

체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바로 이어서 2024 생활체육 전국펜싱 대회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 간 초·중·고등부, 일반부, 엘리트부로 나뉘어 동일종목으로 진행된다. 경기방식은 조별리그와 토너먼트 대진을 벌여 최종 승자를 결정한다.

이번 대회는 2024 파리올림픽에서의 맹활약으로 온 국민의 마음을 흥진 남자 사브르 개인전·단체전 2관왕 오상욱 선수를 필두로 올림픽 3연패 구본길 선수 등 이번 올림픽을 통해 효자종목으로 거듭난 펜싱계의 슈퍼스타들이 2024-2025

시즌 펜싱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해 모두 출전해 자웅을 겨룰 예정이라 많은 관심이 영광군에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최근 국민 스포츠로 급부상하여 클럽과 동호인들의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펜싱종목 대회를 연달아 개최함으로써 선수 및 관계자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방문객들이 영광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수단과 방문객의 재방문을 유도해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대회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나주시,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 당부

개인위생 관리 등

나주시보건소가 최근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증하면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국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가 7월 첫째 주 91명에서 8월 첫째 주 861명으로 한 달 사이에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 환자 1만 2407명의 6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50~60세가 18.1%, 19~49세가

10.3%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양성 검체 분석 결과 오미크론의 세부 계통인 JN.1 변이는 감소하고 있으나 새로운 변이인 KP.3의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나주시보건소는 지난 5월부터 여름철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해 감염병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제의 품귀 현상에 대비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소와 조제 기관(약국) 간 실시간 치료

제 재고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의료기관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 또는 18세 이상(라게브리오)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중증 입원환자(베를로리주)에 대해 처방 기준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기침 예절 실천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발열 및 호흡

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 진료 등의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동렬 보건소장은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더운 날씨지만 적극적인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생활화 및 기침 예절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화순=김선종 기자